

광주·전남 4대 현안 이렇게 풀자

3 광주 문화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연구 광주 설립을”

문화수도 광주의 미래비전을 실현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새 정부들이 주축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의 핵심동력이 될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이 새정부들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문화특구(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과 대규모 문화기반 구축사업인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도 예산확보 차질로 추진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광주 문화수도 조성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 기술·연구 기능 확충 문화산업 허브로 정부 재정 지원 난색... 문화특구 조성 걸림돌

우에도 그 기관은 광주에 들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일대(1만5천283㎡)를 문화특구로 조성하는 사업도 담보상태다. 사업비 30억원이 확보됐지만 정부가 부지내에 포함된 동부경찰서 이전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필요하지만 정부는 재정지원에 난색이다. 문화 중심 도시 7대 문화권 조성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아시아 문화전당을 축으로 광주 5개 구를 문화·예술 지구로 특화함으로써 도심 전체를 문화수도에 걸맞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이 골자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추진일지

- ▲2002년 12월=노무현 대통령 광주 문화수도 육성 공약
▲2004년 3월=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발족
▲2005년 12월=문화전당 설계당선작 선정
▲2006년 9월=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7년 10월=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확정
▲2008년 6월=문화전당 기공식

4 J 프로젝트 차질없게

“사업 규모 축소 절대 안된다”

◇지지부진 J프로젝트=낙후한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는 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J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정부가 부정적·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 사업 예정지구인 해남군 산이면 일대 간척지.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재정 및 투자유치 지원이 필수적이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또한, J프로젝트 사업을 견인하고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줄 ‘F1(포틀러) 국제자동차경주대회’도 지원법 제정 등 정부의 협조가 미처거리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J프로젝트 사업은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로 1년째 개발계획 승인도 받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더욱이 사업지구 내 해남군 산이면 일대 대규모 간척지(20.5km)의 땅 주인인 농림수산물부가 간척지를 원래 목적인 농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간척지 양도·양수문제 해결 안돼 제자리걸음 F1 대회도 특별법 제정 등 정책적 지원 절실

농식품부의 ‘고집’(?) 때문에 J프로젝트 개발계획상 안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사업은 해를 넘기고서도 ‘임질’을 맴돌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농식품부가 외국인 투자사업 지구로 지정돼 투자유치까지 해 놓은 일부 간척지 부지에 대규모 첨단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가 J프로젝트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원이 없을 경우 J프로젝트의 완전한 성공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F1 대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F1 대회는 지난 7월 출자회사 7곳의 납입 자본금 600억원을 확보했으며, 경주장 건설을 위한 연약지반 다지기 작업도 지난해 10월 끝나는 등 전체 공정의 35%가량이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사업비 3천400억원 조달이 지연되면서 추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

을 끌어낼 수 있는 F1 특별법도 국회 국제경기 특위에 계류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사업적 성격의 행사에 국가 지원은 힘들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주장을 완공해 F1 대회 주관 국제기구의 실수를 받아야 하는 2010년 6월까지 18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당장 올해에 필요한 2천여원의 사업비 확보가 ‘발등의 불’이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J프로젝트 추진일지

- ▲2004년 12월=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
▲2005년 8월=기업도시 시범사업지구 선정(관광레저형)
▲2006년 2월=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2007년 4월=컨소시엄법 SPC설립 및 개발구상 작성
▲2007년 11~12월=3개 지구(삼호·구성·초송) 개발계획 승인 신청
▲2008년 2~6월=3개 지구 공청회 및 중앙부처 협의

공시 최고

아래가게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9. 4. 27.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민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용기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